

천막 법당으로 시작 내원정사 창건 30돌

부산일대 교육·복지불사 선도

11월4~5일 기념법회 등 행사 다채



내원정사유치원은 부산지역에서 유아교육의 명문으로 통한다. 사진은 유치원생들이 옛날시장거리장터놀이'를 체험하는 모습.

1972년 구덕산 자락의 천막법당으로 시작했던 부산 서대신동 내원정사(주지 정려가 창건 30주년을 맞아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교육 및 복지불사를 선도하는 대가람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자리를 갖는다. 1972년 5000평 대지에 시작된 1차 가람불사를 통해 대웅전, 관음전, 요사채, 중부 등의 크고 작은 당우 12동의 불사를 완성한 내원정사는 1885년 내원정사유치원 건립의 첫 삽을 뜨면서 교육불사를 시작했다. 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내원정사유치원은 정려선님의 과감

전통문화바탕 교육개발-유아교육 명문 청소년에 장학금·부경 첫 장애인시설도

한 투자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로 유아교육의 명문이 되었다. 입학에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은 물론 내원정사유치원에서 개발한 '우리일 싹 틔우기 자료집'이 경기 지역 유치원 공동 교재로 채택되었고 7차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의 교재로도 발췌 수록되었을 정도다. 특히 1300명의 아생화꽃밭, 1500평의 농장을 활용한 체험학습, 현장학습을 통한 생태교육은 생명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이끄는 전인교육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참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육뿐 아니라 석암장학회

를 통한 중고,대학생 학비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 불사. 선사이자 윤사였던 석암선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된 장학회는 2000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부처님 법을 세상에 퍼는 포교 방편으로 진행된 내원정사의 불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내원과 재단법인 내원정소년단 설립과 동시에 물론대중종합복지관 위탁받은 내원정사는 지역민들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불사에 돌입했다. 합지골청소년수련원, 장애인시설 반야원, 중구청소년문화의 집, 부산산사하활후견기관, 내원시니어클럽, 합천군청소년수련원 등 무려 7곳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위탁 받아, 산

부산 아태장애인대회·제주 전국체전서도

불교 서포터즈 맹활약 '예약'

불교계의 서포터즈 활동이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제주 전국체전을 앞두고 아시안게임에 이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는 삼광사 감조사 용호복지관 불교TV팀 불공양도일 등이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서포

터즈로 활동한다.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도 약천사 법화사 금광사 보현사 등 22개 사찰이 각 대 선수단의 경기관람 및 응원, 음식지원 등 선수단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개교복지관과 영주암은 스리랑카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며

부산불교복지관협의회 소속 복지관과 사찰들도 각각의 서포터즈로 나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 83회 전국체육대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가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 응원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종교화합의 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천미희 기자

"종교갈등 태고 원용사상으로 해결"
김용표교수, 실천원리·방법 개발 필요"

태고보우의 원용사상으로 현대 사회의 갈등을 풀어 보자. 태고학회(회장 무공 스님)는 25일 현대 사회의 갈등과 태고 사상'을 주제로 제5차 학술 발표회를 열었다. 태고보우 국사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나눠 열린다.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종교간 갈등의 해법을 태고의 원용 사상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태고의 사상은 교리나 전통의 차이를 뛰어 넘어 다른 종교사상과의 본질적인 원용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대립의 극복을 위한 원리를 현실에서 응용 실천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의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박경준 교수는 "태고보우는 왕사나 국사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당시 봉건사회의 특성상 임금이 불교적 왕도를 실천하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이천 용학사는 23일 남곡주모관인 목련관 준공 및 삼존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1천기 납골 '목련관' 준공

이천 용학사, 삼존불상 점안 법회도

이천 용학사(주지 해봉)는 23일 1천여 기의 납골을 봉안할 수 있는 목련관 준공 및 삼존불상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선망부도 조상영가 천도 법회도 함께 봉행했다. 목련관은 연건평 108평규모로 지상1층은 납골추모관, 2층은 법당이다. 이날 해봉스님은 "목련관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납골 추모관인 목련관을 준공하게 됐다"며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031)632-4885 강유신 기자

해남 대둔사 명칭 대흥사로 일원화

해남군청과 대흥사는 23일 사찰 명칭을 대흥사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하고, 해남군 도로와 관광안내판의 사찰명도 통일하기로 했다. 92년 3월 산의 옛 이름을 되찾자는 취지에서 '대둔사(大菴寺)'로 사찰명을 바꾼 바 있는 대흥사(大興寺)는 명칭이 혼용돼 두 개의 사찰로 오인되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김원우 기자

단풍 물든 산사서 음악회

11월3일 남양주 봉인사, 9일 해남 미항사

붉은 단풍으로 뒤덮인 산사에서 잇달아 음악회가 열린다.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는 수련원인 자광전 개원 3주년을 맞아 11월 3일 오후 2시 경내에서 '제3회 산사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해국 스님(남곡선원 조실) 법문과 가수 임지훈씨의 산사 콘서트가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 임지훈씨는 이날 산사음악회에서 '사랑의 썬들' 등 10여곡을 부를 예정이다. 또 노래꾼 손병희씨가 특별출연해 '속눈썹' 등을 들려주며 사물놀이패 온시미로와 법고연주가 하유스님도 찬조 출연해 흥을 돋운다. (031)574-5585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는 11월 9일 '달이랑 별이랑 사람이랑'을 주제로 패불제와 작은 음악회를 연다. 오후 1시 보물 1342호인 미항사 대형패불 아래에서 바라춤과 나비춤 등 의식을 선보이는 패불제와 금강스님의 증문 양 탁본 시연이 열린다. 오후 6시부터 열리는 음악회에서는 서울대 이애주교수가 미항사 창건 서사시를 중심으로 풀어낸 춤사위, '우수영 부녀농요' 팀이 들려주는 들노래, 명창 정기열 판소리, 땅끝마을 어린이들의 '동요 부르기', 지역부녀자들의 '군고(群鼓)' 시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061)533-3521 박봉영 기자

화엄사 사리장엄구등 13건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엄사 서오층석탑 사리장엄구(사리, 보물 1348호) 등 1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또 ▷태안사 동종 ▷통도사 석가여래패불패 배불탱 화엄탱 영산회상탱 청동은인사불향문향원 ▷초조보살비담마계신축본 권하 ▷초조본현양성교본 제삼 등이 보물로 지정됐다. 유일하게 원본이 전하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 <삼국유사 권1~5>는 보물 지정과 함께 국보로 승격하기로 하고 지정 예고했다.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출토 사리기 ▷동여도 ▷대동여지도 등 4건은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권형진 기자

노인 300여명 초청 경로잔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흥겨운 놀이마당

효녀 심청이가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열었다는 잔치가 이랬을까? 19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마련한 한마음경로잔치에 참석한 영도구 동삼1동 일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신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점심공양을 대접받으며 훌쩍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구현대아파트를 비롯한 일대 노인 3백여명이 참석

한 이날 경로잔치는 공양에 이어 지원장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놀이마당을 열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환하게 열어놓았다.

"오래전부터 모시고 싶었다"고 인사를 시작한 혜도스님은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공간이 되겠다"고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19일 개최한 경로잔치에는 영구현대아파트 일대 노인 300여명이 참석해 흥겨운 잔치를 보냈다. 어르신들이 장고를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

영남불교대 '좋은인연' 법인설립

복지사업 본격화, 3일 복지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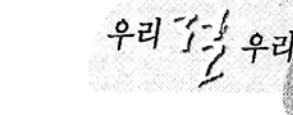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이 사회복지법인 '좋은인연'을 설립,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나선다. 영남불교대학은 최근 인근 여관을 매입, 11월 3일 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영남불교대학 불교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연건평 400평)로 노래방, 강당, 노인휴게실, 사무실, 탁아방, 개별상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지서비스는 영남불교대 불교간병인회, 불교상조회, 포교사단,

전화상담실, 무료급식 장학회 등 신행봉사단체, 연화봉사단 등의 단체가 활동을 벌인다. 영남불교대 학장 우학스님은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한자리에 수행과 정진을 할 수 있는 종합수행 복지시설의 원력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계속해서 유치원 건립 불사 등을 진행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구 기자



김영세(왼쪽에서 세 번째) 씨가 심곡암을 참배하는 불자들에게 관음굴 산신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북한산 산신은 여신이에요. 고고하고 단아하며 자비로운 여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나 무척 고민했어요. 수수하고 영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 돌가루 톱감을 구해 썼구요. 아교를 중탕으로 녹여서 붙여 입체감도 느낄 수 있답니다." 북한산 심곡암 관음굴 안, 산신탱화에 대해 설명하는 젊은 보살의 모습이 진지하다. 이야기를 듣는 불자들이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 처음 볼 때부터 편안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는 산신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숨겨진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표정이다. '여산신행화'에 대해 설명하는



산사축제 팸플릿 등 제작에도 도움

보살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김영세(佛母行 32)씨다. 산신도는 김 작가가 작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매일 109배를 하며 하루 16시간 넘게 그림 그리기에 매달린 끝에 완성시킨 것이다.

"탱화·달력 등 그림으로 불사"

심곡암 산신도 그린 김영세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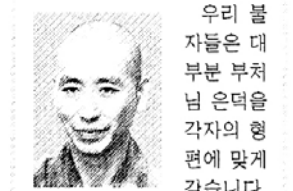
보통 여신도들을 '보살'이라 부르지만 심곡암 주지 원경스님은 김영세 씨를 '김 작가'라고 부른다. 김영세 작가는 현대미술을 전공하고 개인전도 몇 차례 개최한 한직 화가이기 때문이다. 95년 무렵 김 작가는 홍익대 미술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하는 평범한 미술학도였다. 김 작가는 우연한 자리에서 미국을 방

스럽게 심곡암 신도가 됐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는 심곡암에 찾아온 김 작가는 이 때부터 사중에서 하는 일 중 그림이 필요할 곳이라면 어디나 손길을 내민다. 심곡암이 매해 개최하는 산사 축제에도 김 작가에 의해 한결 멋진 축제가 되고 있다. 불자들을 초대하는 초청장이나 팸플릿에는 어김없이 김 작가의 그림이 들어간다. 또한 매해마다 심곡암이 만드는 달력도 김 작가가 직접 그린 그림을 넣어 만든다. 일반인들이 호응이 좋아 매해마다 달력을 구하기 위해 작은 소동이 일어날 정도다. 올해에는 아름다운 한국 자연을 배경으로 한 예쁜 엽서까지 제작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유산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 불교 미술은 너무 획일적이예요. 제주도 사찰 단청이나 강원도 사찰 단청이 매 한가지죠. 그래서 불교 미술을 현대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한다. 김 작가의 손끝에서 한국 불교

주님의 발

원경스님 심곡암 주지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부처님 언덕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갑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김영세 작가는 자기 재주로 부처님 공덕에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심곡암은 매년 한국 불교문화제를 느낄 수 있는 산사 축제를 개최하고, 달력을 제작해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재주를 이런 일에 쏟아, 산사축제와 달력 불사 등 심곡암 행사를 원만하게 회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가와 불자로서 실천하는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모습은 불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미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강유신 기자